



서울, 테마산책길 | 숲이 좋은 길 | 동작구

국사봉길 ⑧

역사가 서려있는 이야기 숲길



걷는구간	송실대입구 1번 출구→살피재→ 상도근린공원 관리사무소→국사봉 정상 →생태놀이터→양녕대군 이재 묘역→ 버스정류장(롯데캐슬)
걷는거리	2.5km
소요시간	1시간 30분
추천시기	사계절
난이도	★★ 중급코스



지금은 차도와 빌딩 숲으로 변한 살피재



국사봉 정상에 있는 비석에는 國師峰이라 쓰여 있지만 國恩峰이라고도 한다. 세종의 맏형 양녕대군이 국사봉에 올라 경복궁을 바라보며 조선과 조선의 왕인 동생을 걱정했다는 데서 유래한다.

국사봉은 동작구와 관악구 사이에 있는 해발 184m의 야트막한 산이다. 작은 산이지만 속은 자연을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나무들이 들어차 있어서 도심의 삭막함을 잊게 해준다. 특히 국사봉의 능선을 따라 정상에 도달하는 ‘국사봉길’을 걷다 보면 동네 뒷산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푸른색에 매료된다.

‘국사봉길’은 차도와 빌딩 숲으로 변신한 ‘살피재’에서 출발한다. ‘살피재’는 동작구 상도동에서 관악구 봉천동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옛날 이곳에 수목이 울창하고 도둑이 많아서 고개를 넘어가는 사람들에게 “살피가라”고 당부했다 하여 그 이름이 붙여졌다. 살피재를 걸어 상도근린공원에 도착하면 국사봉으로 올라가는 산책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산책로는 나무계단과 오솔길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며 잘 다듬어져 있다. 그래도 비탈길이 꽤 있으니 너무 우습게보면 안 된다. 곳곳에 생태연못이나 운동시설 등 쉼터가 많으니 쉬엄쉬엄 둘러보는 것이 좋다. 오르락내리락하며 정상에 이르니 ‘국사봉(國師峰)’이라 쓰여 있는 비석이 반긴다. 저 멀리 한강과 남산 그리고 빌딩 숲이 시원하게 내려다보이니 정상에 올랐다는 게 실감이 난다.



양녕대군 이제 묘역



생태놀이터



내려오는 길에 만나는 생태놀이터는 2018년 국사봉 자락에 새롭게 조성되었다. 아이들이 자연을 체험하고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모래와 흙이 가득한 놀이동산으로 잘 꾸며놓았다. 숲길을 나와 다시 차도를 걷다 보면 ‘양명문(讓名門)’이라는 현판이 걸린 한옥이 나온다. 한옥 대문을 열면 세종대왕의 대형 양녕대군의 묘와 사당이 있는 ‘양녕대군 이제 묘역’을 만날 수 있다. 18년 동안 출입을 제한했다가 2018년에 개방된 묘역은 산새 지저귀는 소리와 연못의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오는 아름다워 정원이자 소중한 문화재이다.

- ☞ 지하철 7호선 승실대입구역 1번 출구로 나와서 서울봉천초등학교 방향으로 걸어서 300m 정도 이동하면 산책로 입구가 나온다.
- ☎ 02-820-1396 동작구청 공원녹지과
- Ⓛ 이용시간 제한 없음. 단, 양녕대군 이제 묘역은 이용시간 제한 있음
주차장 별도로 없음 / 화장실 있음(관리사무소, 생태놀이터, 양녕대군 이제 묘역)
유모차와 휠체어 이용 불가능 / 애견 출입 가능(목줄 사용)

